

정의선 ‘선택과 집중’... 현대제철 이사 사임, 미래후 올인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현대제철, 전문 경영인 체제 강화
현대차·기아차 등선 이사직 유지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본격 가속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한다.

정 수석부회장이 현대제철 사내이사직을 공식 사임함에 따라 그룹의 본업인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전날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서명한 현대제철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안건을 포함했다. 정 수석부회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사내이사직만 유지한다.

회사 관계자는 “사내이사 임기 1년을 남기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건 현대제

철은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 수석부회장은 자동차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현대차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정 수석부회장이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다음 달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1999년부터 현대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해온 정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정의선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다. 정 수석부회장은 2018년 9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지난해 주총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으며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정 회장 시절의 현대차가 내연 기관 차량으로 성장해 왔다면, 다가올 정의선 시대에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전동화 차량으로 미래 경쟁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다음 달 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모빌리티 등 기타 이동수단과 전동화 차량 등 중전 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또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개인용 비행체 등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반면 정 수석부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 등 핵심 사업을 제외한 사업부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단조(금속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 사업을 전달할 자회사를 신설한다고 공시했다. 단조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5G 판 키울 스타트업 발굴·육성

5GX 트루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테스트베드 공간, 테스트용 단말 제공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 서비스 관련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미디어, 보안, 카메라, 모빌리티 등 5G 특화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5GX 트루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트루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는 SK텔레콤이 스타트업과의 보다 체계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G 본격 상용화와 함께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5GX 트루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스타트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을 5G 특화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한다.

SK텔레콤은 27일부터 4월5일까지 2인 이상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해 ▲참여 스타트업선정(5월 중) ▲지원·육성 프로그램 운영(5~10월, 약 20주간) ▲서비스 본격 론칭(11월 중) 등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최대 15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신규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업무 공간과 테스트용 단말을 제공받게 된다. 또 SK텔레콤 내부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사업 전략, 기획 등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또 유관기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사업 전략 및 외부 투자 유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현대차, 고성능 ‘N’ 품은 자전거 공개

위아위스와 ‘N 스페셜 에디션’
로드바이크·MTB 등 2개 구성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의 DNA를 담은 자전거를 선보인다. 브랜드 N이란 기존 모델에서 가속, 코너링, 제동 등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차량을 지칭한다.

현대차는 브랜드 N과 국산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위아위스’ 협업 프로젝트로 탄생한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를 26일 공개했다.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는 ▲로드바이크 ‘와스 프로 N’ ▲MTB(산악자전거) ‘헤시온 N’ 2개의 상품으로 구성된다.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는 위아위스의 기존 상품인 ‘와스 프로’와 ‘헤시온’ 프레임의 카본 레이업을 새롭게 변경해 카본 소재의 고유무늬를 살렸다. 이와 더불어 N의 상징인 퍼포먼스 블루와 액티브 레드 칼라를 부분 적용하는 등 N 브랜드를 활용해 고성능 이미지를 표현했다.



현대차 벨로스터 N 및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

또 전면부에는 N 브랜드를 대표하는 로고를 부착해 스페셜 에디션의 특별함을 강조했다.

박경래 전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위아위스는 양궁 활 제작 기술에서 터득한 그래핀 나노카본 소재를 자전거 프레임에 접목해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국가 대표 선수들을 위한 자전거를 제작하고 있다.

현대차는 스피드와 기술력이 중시되는 공통분모를 지닌 고성능차와 자전거 브랜드의 협업을 통해 N 브랜드의 철학인 ‘운전의 재미’를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는 추후 위아위스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과 고양에서도 각각 26일, 28일 전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미지수... 영향 불가피”

» 1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서 계속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스타항공의 부채비율은 약 484.4%에 달하며 자본잠식률은 47.93%로 부본자본잠식 상태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2018년 기준 1년 이내 6769억원, 5년 이내 1조9487억원 등 2023년까지 총 2조6256억원의 항공기 리스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데 있다. 제주항공은 ▲대구-다낭 ▲인천-마카오 ▲대구-타이베이 등 중화권 노선을 일정 기간 운휴하기로 했으며, 이스타항공도 ▲인천-다낭 ▲인천-나트랑 ▲인천-가오슝 등 대부분 노선에 대해 비운항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제주항공은 지난 12일 위기경영체제에 들어갔으며, 이스타

항공은 임직원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하고 한때 항공유가 공급 중단되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비상경영체제에 따라 경영진이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했고, 내달부터는 임금의 70%를 보장하는 유급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은 임직원 급여 40% 지급에 대해 ‘최소한의 회사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비싼 이스타항공의 비행기 리스료 등이 파악된 상황”이라며 “생각보다 지분 구조가 복잡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탈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도 크게 반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본업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게 얼마나 장기화 될지 알 수 없어 인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전자, 벤츠 모기업 獨 다임러서 ‘우수 공급사’ 선정

LG ‘터치 스크린’ 영감 부문 수상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기여 평가

LG전자가 독일 다임러 AG 우수공급사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최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다임러 본사에서 열린 ‘다임러 서플라이어 어워드 2020’ 행사에서 ‘영감 부문’ 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다임러는 공급업체 중 고객가치 기여도와 향후 비전 등을 평가해 이 상을 시상한다. 올해에는 450여개 업체 중 4개 부문 10개 업체를 추려냈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다임러에 차량용 터치스크린을 공급 중이다.

LG전자는 차량용 터치스크린이 다



LG전자 VS스마트사업부장 은석현 전무(오른쪽)가 독일 다임러 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모습. /LG전자

임러의 인간공학적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LG전자는 전장사업인 VS사업본부

를 신설한 2013년 이후 처음 다임러에서 상을 받았다. 글로벌 프리미엄 제조업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봤다. /김재용 기자 juk@